

# 임시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10:30-12:00
- 개최장소 : 이랜드재단 회의실
- 총이사수 : 6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박영희 이사 이상 4명

##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합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제 1호 의안> 2018년 법인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이랜드재단 2018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의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일 국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은 각 7,256,000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부금, 재산수입, 기타수입, 이월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랜드재단의 핵심사업인 '이랜드인큐베이팅'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도는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공유가치 창출 프로젝트(CSV),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지역사회 복지지원 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이외의 각 사업별 예산 및 사무비, 재산조성비 등의 항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확대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경우, 좋은교사 모임과 연계하여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교사들로 구성된 멘토를 통한 멘토링 활동을 심도있게 진행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부분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태웅 이사 : 공유가치 창출 프로젝트(CSV)는 어떤 사업 입니까?

▶ 정영일 국장 : 이랜드그룹의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텔, 레저, 외식업 사업부와 협업을 통해 문화적인 혜택의 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소외계층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은 있어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은 잘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이 활력과 쉽고 회복을 줄 수 있도록 이랜드그룹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희 이사 : 2018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한 부분들이 보이고 세워진 사업들을 적절하게 잘 진행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및 우리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립된 사업계획을 잘 진행 해주길 바랍니다.

▶ 윤형주 이사 : 2018년 사업을 새롭게 진행함에 있어 이전까지의 사업 내용이나 진행 상황 등을 냉철히 평가하고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잘하는 점은 더욱 강화하여 기부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며 수혜자가 최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경준 이사장 : 없으시면 2018년 법인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2018년 법인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은 12시 00분


2017년 11월 27일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인)



이 사 이 태 응 (인)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박 영 희 (인) 